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8(土)	19(日)
	
맑음 9/27℃	구름 많음 12/27℃

News

- 무등산 조레 제정 유보 ②
- 아버지·두말 경찰가족 ③
- 한·일 배구 탐매치 ⑭

Entertainment

- '남자 이야기' 박기웅 ⑦
- 가정의 달 가족 영화 ⑩

Wellbeing

- 소금 섭취 줄이기 ⑤



Books

- 정조의 마음을 분석하다 ⑧
- 가슴벅찬 개들과 교감 ⑨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가전·우주탐사 로봇 광주·전남서 만든다

600억 들여 2013년까지 개발·지원센터 설립

전남에 지능형 우주로봇센터가 들어서고 광주에는 가전로봇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등 광주·전남이 우주·가전로봇 개발사업의 핵심기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로봇 특별법에 따라 정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특히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나 영암 대불산단에 '지능형 우주로봇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고장을 수리하는 등 극한환경에서도 스스로 판단해가며 활동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우주로봇센터는 전남테크노파크와 광주과기

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관리하게 된다. 올해에는 센터설립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며,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오는 2013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모두 1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2013년 로봇 3대 강국, 2018년 로봇 선도국가를 목표로 차별화된 진흥정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2013년까지 로봇산업의 국내시장을 4조 원까지 키우고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시장의 13.3%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도 최근 '2009년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을 위한 신청 서류를 마감한 결과, 유일하게 응모한 광주테크노파크가 사실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1일 광주테크노파크와 로봇센터 건립예정부지 등의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이달 말

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가전로봇은 생활 속 가전제품에 지능·통신·이동 기능을 집어넣어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로봇 분야로, 국가 신성장동력인 첨단로봇 기술을 접목한 가전로봇을 특화,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테크노파크는 사업자로 확정되면 오는 2013년까지 국비 300억 원 등 모두 447억 원을 투입해 광주를 첨단 가전로봇 생산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가전로봇지원센터 구축·기술 개발·시제품 제작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광주가전로봇육성 사업 총괄책임자인 박종오 교수는 "로봇이 들어간 생활 속 가전제품을 만드는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 광주를 세계적인 로봇생산 메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김지을기자 dok2000@

다산 정약용 영정 강진군 수정 제작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의 영정이 그의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군에 의해 새롭게 제작됐다.

강진군은 17일 서울 동산방화랑에서 새 영정 설명회를 열고 수목화가인 김호석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제작한 다산의 영정을 공개했다.

새 영정은 96×178cm 크기로, 짙은 쪽빛 도포를 입고 머리에 쓴 사방관(四方冠)은 쓴 인자하고 품위있는 50대 학자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안경을 낀 모습을 담았다. /연합뉴스



노건호씨 '500만달러 관리' 일부 시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박연태 태광실업 회장의 돈 500만 달러의 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했던 건호씨의 처음 진술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많이 번복됐고,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 부터 송금받은 500만 달러의 자금이동을 추적한 결과 건호씨가 연씨와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건호씨가 500만 달러 중 250만 달러를 본인인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로 가져온 뒤 미국에 있는 P사 등을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오르고스'와 외삼촌 권기문씨가 대표인 회사에 각각 수 억원씩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건호씨를 네 번째로 소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김경원 창신섬유 회장을 상대로 2007년 8월 박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서울 S호텔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하고 싶어했던 화포천 개발 등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림화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도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회갑선물 명목으로 건내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일 봄 소풍을 나온 담양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새색이 돌기 시작한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고 있다. 불황으로 찌든 세태를 위로하듯 초록으로 빛나는 동심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위지량기자 jrvi@kwangju.co.kr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정부행사 승인

순천시가 준비해온 2013 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 행사로 추진된다.

순천시는 17일 "기획재정부가 2013 국제정원박람회를 정부행사로 유치하기로 오늘 최종 승인했다"며 "정부가 앞으로 2013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폭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순천시는 올해 안에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와 세계박람회 기구(BIE)의 승인을 거쳐 2013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2013 국제정원박람회가 유치되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전남 동부권에서 연이어 '담대부 박람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박람회는 오는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도심과 순천만 상류 사이 152만7천㎡ 부지에서 열리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스펙티스탁·세기보청기

1388-9400 / 062-222-8111